

<p>민 지 실</p> <p>음 혜 천</p>	<h1>BUDDHANARA</h1>	<p>FAITH WISDOM ACTION</p>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を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첫째주 일요일 11 시 초하루 인등기도 법회 및 새로운 찬불가 배우기
셋째주 일요일 11 시 : 전법기도법회, 교리탐구



Intensive Meditation Retreat : 성도제일 참선 용맹정진
From 7:00 pm to 11:00 pm : 12월 18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11월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 오전 11시-오후 1시
Pinckneyvill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5
송년회 : 오후 1시부터 성락 권혁만 거사님 댁에서 가짐 (법회후에 함께 이동)

부다나라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9am. (매주 토요일 9 시) :저녁 용맹정진으로 인해 12 월 18 일 셋째주 오전 참선법회는 없습니다.

Every Tuesday 6:30 pm (매주 화요일 저녁 6 시 30 분)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이달의 법구경

흔들림이 없는 사람,
내재하는 빛으로 깨달음을 얻은 사람,
학식이 있는 사람,
오랜 고통을 겪은 사람,
헌신적인 사람, 고결한 사람,
이렇게 선하고 위대한 사람 만나면
달이 별 따라 가듯 하라네.

If you find a man who is constant, awake to
the inner light, learned, long-suffered,
endowed with devotion, al noble man
- follow this good and great man even as the
moon follows the path of the stars.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10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2010년 11월 20일 (음력 10월 15일) 부터 2011년 2월 17일 (음력 1월 15일) 까지 삼개월간 동안거 결제에 들어 갑니다. 부다나라 불자님들도 동안거 결제 기간동안 6 바라밀과 8 정도를 실천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 한 가지씩 택하셔서 매일 매일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다나라 주지 선각 합장-

불기 2554년 중정예하 도림법전 대종사 경인년 동안거 결제 법어

마치 대지 전체를 불붙인 순간처럼

다시 동안거 결제를 맞이하였습니다. 석 달의 기간이 차면 결제가 끝나는 해제일이 오겠지만 그 공덕은 시작과 끝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만리 전체가 하나의 췌덩어리인 듯이 여기면, 오로지 본래부터 참구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대결해야 할 화두만 있을 뿐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인지 깨닫지 못할 것인지조차도 따지지 말아야 할 것이니 하물며 다른 것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참선공부는 한 땀 한 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순간에 온 천지를 불태워버리는 공부법입니다.

결제라고 하여 고요한 경계에만 스스로를 묶어두려고 해서 안 될 것입니다. 활발활한 선기(禪機)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썩은 물에 잠겨있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썩은 물에 잠겨서 썩은 물 인줄도 모르고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간화선을 공부하려는 남자가 아닙니다. 공부를 함에 시끄러운 것을 피하여 고요한 곳으로 가서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귀신의 굴 속의 살림살이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며 혹여 이것을 공부라고 여겨서도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옛 선사들은 이것을 흑산 밑에 앉아서 썩은 물에 잠겨있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무슨 공부를 제대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는 것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걸음 나아가도 죽을 것이며 뒤로 한 걸음 물러나도 죽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는다면 이것 역시 썩은 물에 잠겨 죽는 신세를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이런 곤경에 처한 몸을 벗어나게 하는 길을 삼동 결제동안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대해번신(大海番身)한다면

불방탈쇄(不妨脫洒)하리라

바다에서 몸을 완전히 뒤집는다

틀림없이 속박의 때를 벗어나리라.

불기 2554(2010)년 동안거 결제일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정 도림 법전

“불교편취 방관해서는 안돼”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성명서 발표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교편취와 관련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지난 16일 제 185회 정기총회에서 오십스님 등 15명의 종회의원이 발의한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불교 편취에 대한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이 성명서에서 “불교편취로 표출되는 최근의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현상은 황당함과 안타까움을 넘어 대다수 국민의 불안과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타종교에 대한 일련의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사건들은 인류문화가 추구해온 근원적 종교의 역사를 등쳐버리는 편협하고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잘못된 개인의 신앙관에 기준하여 이웃종교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우월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며 “일부 편협한 종교인들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선 들쭉날쭉한 주장과 행동이 국민들에게 종교 갈등으로 비춰지고 국가적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불교도들은 크게 심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종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일처리가 작금의 종교문제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더 이상 이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고,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공평무사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중앙종회에서 채택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사회를 위기로 몰아가는 불교 편취에 대한 성명서

오늘날 다종교 다문화의 시류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하는 모든 국가와 인류의 전반적인 경향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사회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해가는 이 시대에 상생의 종교문화를 실천하는 것은 유구한 민족문화를 성숙시켜오며 다종교를 포용해왔던 우리민족의 원력이자 실천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불교평화로 표출되는 최근의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현상은 황당함과 안타까움을 넘어 대다수 국민의 불안과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종교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종교문화는 인류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해왔습니다. 각각의 종교문화는 그 신도들을 행복하고 화합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왔고, 서로 다른 종교와 종교인들도 인류의 행복과 화평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타종교에 대한 일련의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사건들은 인류문화가 추구해온 근원적 종교의 역사를 등거버리는 편협하고 극단적인 종교적 신념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인류문화가 생성해 온 중요한 자산이며 의지처입니다. 마치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듯이 잘못된 개인의 신앙관에 기준하여 이웃종교에 대해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우월의식을 표출하는 것은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인류역사가 담보하는 종교문화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조차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봉은사 땅 밟기, KTX 울산역 통도사 명칭 삭제, 대구기독교총연합회의 동화사 편취와 불교관련 정부지원 및 협력사업에 대한 도발, 울산 4대 사찰 땅 밟기 등 점점 누적되어 가는 현안의 문제가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의 길로 가게 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편협한 종교인들의 상식과 이성을 넘어선 돌출적인 주장과 행동이 국민들에게 종교 갈등으로 비춰지고 국가적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 불교도들은 크게 심려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종교적 신념과 이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는 성직자와 종교인들은 반복되는 유사의 사건들을 안타까운 심정으로만 대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실천과 행동을 망설여서는 안됩니다. 자칫 저 다른 나라의 전쟁과도 같은 종교분쟁이 이 땅에서도 발생할까 심히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의 가르침만이 절대적이라 여기는 것은 오히려 보편적인 신앙의 존엄성과 종교의 본연을 왜곡하는 억측이자 편견임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정부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종교화합을 위한 정책과 지침 마련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을 유발 또는 방기한다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모호한 태도와 일처리가 작금의 종교문제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렇게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공평무사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순수한 신심과 용기를 가지고 그릇된 종교관을 바로잡아야 할 종교적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기 종교를 넘어서서 모든 종교와 종교인에 대한 보편적인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 현실에서 온전하게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편협하고 그릇된 신앙에의 몰입과 행동표출이 인성마저 훼손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과 신심이 깊은 종교인들은 종교에 의지하는 모든 이들이 종교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고 보다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투쟁과 분열을 통해 힘을 키우고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은 외도(外道)이고, 이단이며, 사탄에 다름 아닙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 때문에 부질없는 갈등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평화가 인류의 소중한 상생의 자산이자 가치임을 모든 사람들이 자각하고 실천하기를 진정으로 결의하며 발원합니다.

불기 2554년 11월 16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일동

“봉은사는 하나님의 땅이 됐다”

‘땅 밟기’ 동영상 논란…찬양인도자학교 측 불교계에 사과

개신교 소속 한 찬양 선교회 교육생들이 불교 조계종 사찰인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하는 모습과 불교를 편취하는 발언을 담은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 동영상이 10월 25일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동영상의 제목은 '봉은사 땅 밟기'. 10월 중순경에 촬영된 6분 3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6명의 20대 남녀가 봉은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사찰 곳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들어 있다. 이들은 '찬양인도자학교' 소속임을 밝히고, 땅 밟기를 한 뒤 소감을 말했다. 소감 내용은 "주님을 믿어야 할 자리에 크고 웅장한 절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마음 아팠다", "이 땅(봉은사)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선포했다", "이 땅은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할 것이다", "우리가 지나간 이 땅에 주님께서 역사할 것을 믿고, 이런 우상 숭배가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을 선포한다" 등이다.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0월 24일 일요 법회에서 이 동영상에 대해서 언급했다. 명진 스님은 "예수의 사랑, 평화의 가르침,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기독교인이 많다. 그러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기독교인이 한국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명진 스님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봉은사 땅 밟기' 동영상은 포털·블로그·트위터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 나갔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 냈다. 한 누리꾼은 "상식 밖이다. 기독교에는 타 종교를 포용할 관용도 없는가"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목회자들은 젊은이들에게 분열과 배타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랑과 배려를 먼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했다.



▲ 10월 중순경에 촬영된 6분 30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6명의 20대 남녀가 봉은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사찰 곳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들어 있다. (봉은사 땅 밧기 동영상 갈무리)

개신교인도 땅 밧기를 한 이들을 비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누리꾼은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이건 아니다. 미꾸라지 교인 몇 명이 기독교 전체를 흐리고 있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 사건은 이제는 숨길 수 없이 한국 개신교의 한 부분이 되어 버린 '공격적 선교'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신교인 중에는 땅 밧기를 한 이들을 대신해 봉은사를 비롯한 불교계에 사과한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들은 봉은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고, 10월 26일에는 조계사 앞에서 사죄 행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죄 행사가 쇼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일부 기독교인의 망동,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의 사과문만 조계사 종무실에 전달했다.

찬양인도자학교 최지호 목사, 봉은사 측에 사과

파문이 커지자 찬양인도자학교를 주관한 '에즈 37' 측은 26일 오전 봉은사 측에 전화해 사과했다. '에즈 37' 대표 최지호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봐도 (이 동영상은) 정상이 아니라고 볼 것이다. 봉은사와 불교계에 죄송하다"고 했다. 어떤 경위로 동영상이 촬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10주 동안의 찬양인도자학교 수강 기간 중에 조별로 강남역 부근으로 나가 노숙자를 돕고, 거리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20대 청년으로 구성된 한 조가 총동적으로 봉은사에 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와 담당 간사, 동영상을 만든 청년들을 포함한 10명은 10월 27일 오전 봉은사를 찾아가 명진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을 만나 "봉은사와 불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며 사과했다. 최 목사는 "학생들을 잘못 가르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용서를 구한다. 저희들의 무지와 무례를 호되게 꾸짖어 달라"고 했다. 동영상을 제작한 박 아무개 씨는 "동영상은 우리끼리 보기 위해 만든 것일 뿐 불교를 공격하려는 뜻은 없었다. 젊은 혈기로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죄했다.



▲ 최 목사와 담당 간사, 동영상을 만든 청년들을 포함한 10명은 10월 27일 오전 봉은사를 찾아가 명진 스님과 신도회 임원들을 만나 "봉은사와 불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며 사과했다. (사진 제공 봉은사)

명진 스님은 "이번 일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전체 개신교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동영상으로 유포되지만 않았을 뿐, 이런 일은 그동안 빈번하게 있어 왔다"며, 화계사 방화 사건과 일련의 훼손 사건(동국대 불상, 청주 보현사 불상)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진정한 종교인이라면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성찰을 통해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남을 배려하고 고통을 주지 않는 것이 청년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일 것이다"고 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종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한국 사회의 화합을 다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는 뜻에서 사과를 받아들여줬다"고 했다.

봉은사 측이 사과를 받아들인 다음 날인 27 일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종평위)가 '땅 밟기' 동영상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종평위는 "봉은사 땅 밟기'를 한 사람들과 지도 목사가 봉은사를 직접 방문하여 공개 사과를 했다고 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종교·다인종 한국 사회에서 종교계의 존중과 배려, 상생의 종교 문화를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특히 개신교 지도자들의 진정 어린 성찰과 책임 있는 재발 방지를 위한 역할이 있기를 호소했다.

명진 스님, "사과의 진정성 없었다"...최 목사, 거듭 사과
찬양인도자학교 측이 사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명진 스님은 10 월 31 일 봉은사 법회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느 매체에 보니까 최 목사가 '학생들을 나무랄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했다"며, "이는 여론이 안 좋으니까 임시방편으로 사과하는 척한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명진 스님은 "기독교 주류에서는 오히려 '왜 들키게 했느냐', '왜 핑계를 댔느냐'고 생각한다. 남의 종교를 저주하고 사탄이고 우상 숭배라고 부르짖는다. 봉은사만 해도 교회 청년부들이 여러 차례 땅 밟기 기도를 다녀갔다. 이건 일부의 문제가 아니고, 광적이고 집단적인 히스테리 증세다"고 했다.

봉은사 측이 사과의 진정성을 문제 삼자 최지호 목사는 11 월 2 일 봉은사 홈페이지에 거듭 사과 의사를 밝혔다. 그는 '용서를 구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남기고, "불미스러웠던 일로 마음의 상처와 혼란을 겪으신 봉은사 주지 스님을 포함해 봉은사 그리고 모든 불자님께도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합니다"고 했다. 최 목사는 깊이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다며, 올해 준비 중이던 7 개의 단기 학교를 중단했다고 했다. 내년 초까지는 자숙하며 그동안의 모습을 평가하고 바르고 성숙한 모습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땅 밟기 사건에 책임을 느껴 사역하던 교회도 바로 사임했다. 또한 최 목사는 동영상을 만든 청년들을 크게 혼내 주었다며, 지금은 모두 자숙하며 지내고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서 "이번 일로 계획하던 상당 부분의 일을 내려놓았다. 큰 손실이 있지만 무지와 무례했던 대가로 해당 청년들과 함께 값을 치를 생각이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 달라고 했다.

© 뉴스앤조이 기사에서 발췌

“봉은사 땅 밟기는 폭력이다”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기독교 예배를 보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다. ‘봉은사 땅 밟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에서는 불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 헛되고 헛된 것들”이라 말하고 있다. ‘땅 밟기’는 대구 동화사에서 있었다. 이 동영상은 상인동 가스폭발, 지하철 참사 등 대구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는 불교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이 미안마의 한 사찰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 ‘해외 땅 밟기’도 이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오세택 목사(두레교회·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에게 이에 대해 물었다.

기독교 신자들이 봉은사 법당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선포하는 ‘땅 밟기’를 했다. 신자들이 땅을 밟으면 기독교의 땅이 되는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땅 밟기를 했다고 구약에 나와 있다. 그것은 구약에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과 이치에 전혀 맞지 않다. 내가 생각하는 땅 밟기는 탐욕·자기애 같은 땅을 밟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지금 신도들이 절에서 한 땅 밟기는 폭력일 뿐이다.

한국 기독교는 힘이 세고 공격적이라는 평이 있다.

한국 기독교가 1980 년대 중반 급속히 팽창하면서 힘이 생겼다. 그때부터 권력화되었다. 교회가 정치·자본 권력과 접목되면서 본질을 잃어버렸다. 자본주의 논리가 기독교를 점령했다고도 볼 수 있다. 순복음교회는 한국 교회 세속화의 대표 사례다.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재산을 놓고 다투고 있다. 기독교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을 통해 타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종교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 주장만 한다. 성공 지상주의에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

교회에 다니면 성공하고 구원받는가?

기독교가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 돈 벌고 싶은 욕망 등 세속적인 욕망과 결합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는 성공주의로 흐르게 된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다. 오병이어(예수가 빵 5 개와 물고기 2 마리로 5000 여 군중을 먹였다는 내용)의 기적을 보고 따르는 이들에게 물질적 이득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더니 사람들은 다 가버렸다. 성공·성장 그리고 교회의 크기로 진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핵심 진리가 있느냐가 문제다. 한국 기독교는 구원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자기중심적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존재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다. 한국 교회는 이기적인 해석으로 자기중심적 왜곡에 빠져 있다.

최근 들어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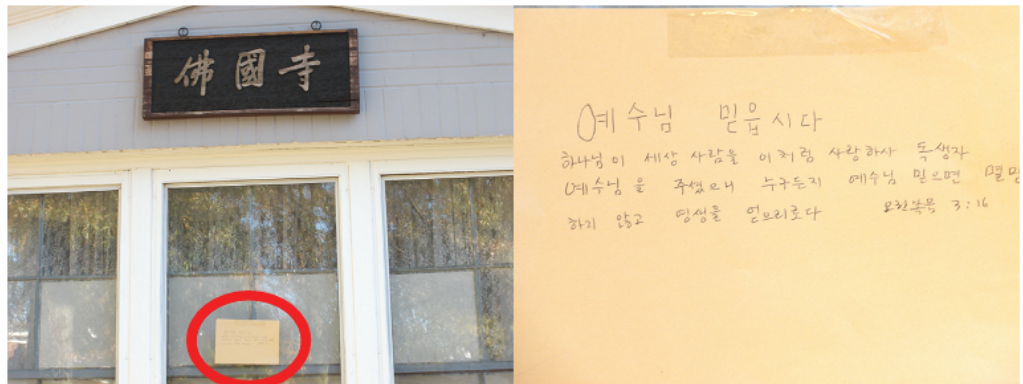
이명박 장로가 대통령이 되는 데 보수 기독교가 1 등 공신이였다. 이제 정치의 힘으로 교세 확장을 꾀하려는 이른바 잘나가는 목사들이 한국 교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그들의 무리한 행태가 기독교 편향 등 종교 간의 갈등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반감이 더 커지고 교인이 줄고 있다.

© 시사in 164 호 11 월 1 일 (<http://www.sisainlive.com>) 에서 발췌

세인트루이스 불교사찰에 기독교 전도문 나붙어 "테러행위와 같아" 경찰 감시 착수 조사 이어질 수도... 선각스님 "대화로 풀었으면..."

한국에서 일부 기독교 신자들이 '봉은사 땅밧기' 등을 통해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세인트루이스 유림의 불교 사찰인 '불국사' 에도 기독교 전도 내용의 벽보가 계속 나붙어 불국사 관계자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불국사에 기독교 전도 내용의 글이 처음 나붙은 것이 발견된 것은 지난 11월 8 일(월) 아침이었다. 불국사에서 홀로 거주하는 주지 선각스님이 낙엽을 쓸고자 밖으로 나와 보니 건물 전면 큰 유리창에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이다. 요한복음 3:16" 라는 내용의 글이 담긴 레터지 크기의 종이 나붙은 것을 발견했다. 또한 11월 14일(일) 저녁 6시 10분쯤에 선각스님이 외출 후에 와보니 불국사 부엌 입구 쪽에 지난번 보다 더 큰 크기로 같은 내용의 글이 담긴 종이 나붙었다. 이어서 11월 18일(목) 예도 밤 9시 20분쯤에 주차장 옆에 같은 내용의 글이 담긴 종이 나붙



은 것을 역시 선각 스님이 발견했다. 세 번째 나붙은 글은 앞서서 붙인 글과 필적이 달랐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은 본 한겨레저널에 이 사실을 전하면서 "처음에 이 글을 발견했을 때 너무 놀랐다. 마치 테러와 같이 위협을 느꼈다. 혼자 불국사를 지키고 있기에 공포감마저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진정이 되었다. 이 글을 붙이는 사람을 발견하면 차 한잔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다." 고 말했다. 두 번째 글이

나붙었을 때는 승용차를 태워 준 미국 신도가 함께 있어서 그가 경찰에 리포트를 하라고 권유하는 바람에 경찰이 조사하고 갔다고 선각 스님을 밝혔다. 그러나 선각 스님은 같은 한국인의 소행이기 때문에 이내 경찰 신고를 후회했다면 대화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했다. 경찰조사로 종이에 묻어 있는 지문이 채취되면 신원이 파악되어 예기치 않는 방향으로 사태가 나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에 대해서 세인트루이스 목회자 협의회 회장 이근우 목사는 "전도는 지혜롭게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듯이 무례한 행동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 고 강조했다. 한 평신도 크리스천은 "종교간 평화와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너무도 충격적" 이라고 말하면서 "차후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세인트루이스 지역 목회자협회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고 덧붙였다.

한겨레 저널 265 호 2010 년 11 월 20 일자 에서 발췌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불국사)에 11 월 8 일, 11 월 14 일, 11 월 18 일, 11 월 19 일 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서 어두워진 야밤을 틈타서 밤에만 와서 범당이 있는 사찰 건물벽에다 직접쓴 기독교 전단지들을 붙이고 갔다. 일부 기독교 인들이 한국이나 외국 불교 사찰에 몰래 들어가서 “땅밟기”를 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포착 될뿐만 아니라 사찰이 방화에 노출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로 봐서 타종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봐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비구니 스님이 현재 사찰을 혼자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행위는 위협을 가하기에도 충분하다 하겠다. 현재 University City 경찰이 4 장의 전단지 지문 조회에 들어가 있으므로 곧 범인이 밝혀질 것으로 안다. 경찰은 이것은 “Harassment for trancepassing”이라 단호하게 말하며 다른 죄목(예: Hate Crime, Terr for Different Religion)이 적용되는 지에 관해서도 검토중에 있다고 했다.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본인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불국사 주지 선각 합장-

‘부자된 뒤 보시’ 마음은 현실성 없어

- ■ 재물의 여섯 가지 배반

보시하려는 마음은 기특하지만 재물은 아무리 모아도 모자란 것 같이 느껴져

어떤 사람이 손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신선하고 맛있는 우유를 대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잔칫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자는 고민하였습니다.

‘날마다 우유를 짜서 모아두면 그 많은 우유를 저장할 곳도 마땅치 않고, 신선도도 떨어져서 사람들이 우리 집 우유에 실망하게 될 거야. 좋은 수가 없을까?’

그러다 문득 남자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지금부터 잔치를 벌일 날까지 우유를 한 방울도 짜지 말고 소 뱃속에 모아두자. 그랬다가 잔치가 벌어지기 직전에 한꺼번에 짜내자.’

남자는 즉시 외양간에 들어가서 송아지를 어미 소에게서 떼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잔칫날까지 어미 소에게서 단 한 방울의 젖도 허투루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칫날이 되자 남자는 아주 푸짐한 잔칫상을 차렸습니다. 사람들은 남자의 극진한 대접에 만족하면서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에는 우유가 유난히 신선하고 맛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언제쯤 우유 맛을 보여줄 텐가?”

남자가 기다리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손님들 앞으로 소를 끌고 온 남자는 보란 듯이 젖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인가요? 소젖은 말라서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들은 손님들은 남자의 어리석은 생각을 비웃었고 그는 그날 아주 큰 창피를 당하였습니다.(〈백유경〉 두 번째 이야기)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에게 부처님은 보시를 권합니다. 보시는 하는 동안에도 즐겁고 하고 난 뒤에는 더욱 즐거우며 심지어는 다음 세상에도 보시한 사람을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게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를 하려면 보시할 재물이 쌓여야 합니다. 가난한 처지에 남들에게 뭘 준다는 게 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짐합니다.

‘내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되면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재산을 희사할 테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좀 참자.’

하지만 일단 재산을 모으면 그때는 어찌된 일인지 보시하기를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아직은 보시할 때가 아니다. 조금만 더 모은 뒤에 보시하자.’

이다음에 부자가 되면, 나중에 부자 된 뒤에, 좀 더 돈을 모은 뒤에...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부자가 될까요? 그리고 얼마를 모아야 부자가 될까요? 부자의 기준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애석하게도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모자란 것 같고, 다 움켜쥔 것 같아도 여전히 덜 채워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 재물이요, 부자 되려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시하려는 마음은 기특하지만 재물이란 그리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곳따라 니까야>에는 재물에는 여섯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여섯 가지란, 첫째, 불이 나면 타서 없어지고, 둘째, 홍수에 휩쓸려가고, 셋째, 왕이 몰수하고, 넷째, 도둑이 훔쳐가고, 다섯째, 적이 빼앗아가고, 여섯째, 상속인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이런 여섯 가지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이다음에 조금 더 재산을 모은 뒤 한꺼번에 뭔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그리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성싶습니다. 마치 한꺼번에 우유를 짜겠다고 버르다가 정작 단 한 방울도 우유를 짜내지 못한 남자처럼 부자 된 뒤에 뭘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가 뭘 하기도 전에 재산이 사라져버리거나 혹은 그 부를 누리지도 못하고 수명이 끝나고 말면 낭패도 그런 낭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령 /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법회소식 NEWS

- 조지아주 부다나라 정기 법회는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에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관심있는 분들과 뜻깊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으면 합니다.
법회장소는 Pinckneyville Park 에 있는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Room # 5 입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정기법회는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입니다.
주소는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Norcross, GA 30071 입니다.
구글에 찍으면
4650 Peachtree Industrial Boulevard, Doraville, GA 30360 으로 나오는데 꼭 Norcross 로 오셔야 됩니다
- 11 월부터 애틀랜타 와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정기 법회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많이 독송하고 친숙한 경전중 하나인 “천수경”을 강의합니다. 꼭 법회에 참석하시어 “천수경”을 다시한번 공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 2011 년 1 월 11 일 (음력 12 월 8 일)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성도재일 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성도재일을 기념 하여 약 한 달정도 빨리 2010 년 12 월 18 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참선 용맹정진이 있습니다.
- 애틀랜타 부다나라는 12 월 12 일에 성락 권혁만 거사님 덕에서 송년회 파티가 있습니다. Pinckneyville Community Center 에서 정기 법회가 끝난후에 모두 같이 성락 거사님 덕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총무 무영 김동하 거사님과 현심행 김철아 보살님과 상의 바랍니다.
- 애틀랜타 부다나라 법회에서 굿은일 마다앓고 신심을 다해 봉사하고 있는 만철 권순철 법우님이 이번에 재미 한국불교 장학회 (Korean American Buddhist Scholarship Foundation)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 전지역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재미 한국불교장학회는 최무직 회장님이 창설한 장학회인데 매년 10 명의 장학생이 선발됩니다. 장학증서와 장학금 \$1,000 은 12 월 둘째주 일요일 정기법회때 수여 합니다. 모두들 축하해 주십시오.
- 환영합니다. 미국 남미의 작고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인 온두라스에서 한국 대사관 영사로 재직하고 계신 오종민 영사님이 12 월 23일부터 12 월 26 일까지 부다나라에서 템플스테이를 하십니다. 이번에 세인트루이스를 방문하신 김에 부다나라 불자님들의 따뜻한 마음씨는 물론이고 세인트루이스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들을 많이 담아가셨으면 합니다.
- 9 월 21일부터 9 월 25 일까지 시카고 소재 봉불사 주지 관호스님이 미국 명절인 Thanksgiving 을 맞이하여 11 월 23일부터 11 월 26 일까지 사찰을 방문해 주셔서 신도님들과도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부다나라를 방문해주신 관호스님 과 일심으로 스님에게 공양해 주신 신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11 년 달력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근교나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을 제외한 타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미주리주 지역과 조지아주 지역에 사시는 신도님들께서는 법회때 가져가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오시지 못하시는 신도님들은 따로 사찰로 연락 주시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2010 년 10 월, 11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97 무신생 선범 조승호, 198 번 임자생 차은주, 470 번 갑오생 덕명화 임안란, 473 번 Sun K Lewis, 474 번 Bill Lewis, 488 번 기해생 박태연.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부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토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토로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한 평 불사 : 무진생 이정숙,

2011 년 달력 불사: 성락 권혁만 \$200.00, 정행 원상희 \$200.00, 무량화 문봉순 \$100.00, 반야(Prajna) Greg Kilper \$100.00, 무주상 \$100.00, 무주상 \$100.00, 여래성 김선영 \$50.00, 불국회 회장 자광 김용오 50 만원.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부다나라 (불국사), 또는 한국 불국회 로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